소천(召天)의 무한반복

(요11:38~43)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소천(召天)의 무한반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소천(召天)의 무한 반복'

소천(召天)은 그냥 기독교에서 통상적으로 죽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부를 소(召), 하늘 천(天), 그래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소천(召天)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뜻이 잘못 되었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소천(召天)이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써서는 안 될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죽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것.

이것은 하늘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오히려, 하늘의 부름의 사건이 중단되어 지는 거예요, 하늘이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하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가 우리 몸이 죽게 되면 더 이상은 하늘이 우리를 부르는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 하늘의 부름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거고, 하늘의 부름을 받지 못하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이젠 더 이상 하늘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No more chance!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체가 죽는 것은 하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부름은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 되다가,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하늘의 부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소천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살아 있던 자가 죽으면서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음 속에 있던 자가 살아 나오도록 부름을 받는 게 소천(召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다가 살아나도록 부름을 받는 게 소천(召天)이지, 살아 있다가 죽게 되는 경우를 소천(召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천(召天)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이 부르시는 겁니다.
왜 하늘이 부르시는 거냐 하면,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머리털하나 간격만큼도 그 생각의 간격이 없습니다. 생각이 일치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과 그렇게 생각이 일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십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각과 머리털 하나만큼도 오차 없이 일치하시기 때문에, 그 분의 생각과 그 분의 계획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입니다.
이 땅에 내려온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썩기 시작한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

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이게 바로 하늘이 부르신 것이고, 나사로가 그 썩기 시작하던 육체가 다시 생기를 얻어서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이게 바로 소천(召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천(召天)은 멀쩡하게 살아 있다가 육체가 죽는 사건이 소천(召天)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던 상태에서 삶의 상태로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살아 나오는 것이 바로 소천(召天)이라 이 얘기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소천(召天)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잘못 된 사용을 우리가 당연시 하고 살아갈까요?
주보에 광고가 나올 때 보면, 아무개 집사님께서 소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육체가 죽은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명령과 하늘의 섭리가 주어진 것이지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내게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가 죽는 것은 내게로 오라는 부름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는 부름의 사건은,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늘에서 내게로 오라는 부름의 사건이 끝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이 육체가 죽는 시점 이전에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로 영생할 것이고,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을 안 했으면, 그는 잠들어 있다가 부활해서 지옥으로 영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죽는 사건은, 하늘의 부르심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이 부르시는 사건의 끝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주어지는 것이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러면.
아담이 범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 한 후에 된 일이 뭐냐 하면, 하늘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떠난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세상을 떠난다! 이거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몸이 죽는 걸 세상을 떠난다고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죽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하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별세(別世)가 아니라, 별세(別世)는 세상과 이별한다는 뜻인데, 별천(別天)이에요 별천(別天).
하늘과 이별을 한 것이 진짜 죽음인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이 실상을 제대로 깨닫고, 아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은 거라는 걸 깨닫고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근데 마귀가 이걸 싹~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건에 옮겨놓았나 하면, 하늘을 떠난 것이 죽음인데,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내용을 바꿔버렸습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죽음으로 바꿔놓아 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이것이 죽음인데, 세상에 머물고 있는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보고 통탄해 하고 비통해하고 애통해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 실상을 싹~ 가려버려서, 이미 하늘을 떠나 있으므로 별세(別世) 가 아니라 별천(別天)함으로써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 있고 이미 무덤에 있는데, 우리 몸이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에 다 속아 넘어가지고, 몸이 죽는 걸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벌벌 떨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천(召天)의 사건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무덤에 있는 자를 불러내십니다.
우리는 다 지금 무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늘을 떠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좋아하고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 세상에 여기에 머물렀다 저기에 머물렀다, 이걸 이루고 싶다 저걸 이루고 싶다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다 무덤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무덤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 소천(召天)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직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읽겠습니다마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직후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십자가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를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향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치시면서, 소천(召天)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그 하늘의 부름을 받고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무덤에서 죽어서 썩고 있던 상태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고 나온다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의 참 의미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부름의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고백함으로써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함께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소천(召天)의 사건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나사로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나오게 되는 그 순간에 무덤에서 썩고 있던 나사로의 죽음이 죽어버립니다.
죽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덤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머물고 있는 무덤인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다는 것은, 이 세상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과 같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나사로가 묻혀 있던 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에 대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고, 십자가의 부름을 받는 것이, 내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하늘을 떠나서 별천(別天)한 죽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라는 무덤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서 거기서 세상일로 걱정 근심하면서 마음이 썩어가고 있다가, 십자가의 부름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천(召天)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 이게 바로 하늘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있으면, 백악관은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무덤입니다.
대통령의 주검이 들어있는 무덤이에요.
청와대에 들어갈 대통령이,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같아요? 아닙니다.
죽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는 무덤이 됩니다.
버킹검 궁전에 사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들려오는 하늘의 부르심, 소천(召天)의 사건에 응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음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곳에서, 이 세상일에 붙들려 가지고 썩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회장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르시는 하늘의 부름, 소천(召天)의 사건에 응답할 수 없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잘 꾸려진 무덤인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와 함께 죽자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집안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 세상 안에 집안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그 집안이 우리 마음의 무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을 떠났기 때문에.
하늘을 떠나, 세상을 떠난 자를 공동묘지에 묻어버리듯이, 하늘을 떠난 자들이,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아버지 생각 안하고 하늘생각 안하면서, 이 집안일 생각에 다 묶여 있을 때, 그 집안일이 바로 내 마음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직장 일이 내 마음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떠난 거니까.

죽은 자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일에 매여 있고, 집안일에 매여 있고, 돈 벌기에 바빠서 내 마음이 분주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아무개야 나와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온 천지에 우리가 어디에 가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지금의 사건으로 내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안 보고 있을 뿐이지요.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지금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지금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에 대해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이 이 세상 문제에 끌리는 이 상태가 무덤에 묶여 있는 상태이고, 무덤에 갇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 굴에 돌이 치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건데 그 돌이 치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돌을 치우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갇혀 있어요.
집안일에 갇혀 있지요, 나사로의 시체가 큰 돌로 막혀 있는 입구가 막혀 있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직장문제로 마음이 거기에 갇혀 있지요,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갇혀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하고 온통 이 세상일에 다 묶여있구나 이게 내 무덤이다. 이게 내 무덤이고, 이게 내 죽음이구나. 자!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죽음에 대해 죽자!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가자, 하늘을 떠난 것이 죽음이고 별천(別天)이니까, 하늘과 이별을 한 것이 내 죽음이고, 그것이 하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내가 타계에 와 있으니까, 타계했다고 하지요? 타계했다.
다른 세상에 와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해 죽음의 세상에 대해 죽고 떠나자!, 하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로 돌아온 자들에게 이제 이 무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대통령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늘의 음성, 소천(召天)의 사건을 받아

들이지 않을 때에 청와대는 무덤이 됩니다.
나라일 때문에 걱정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일이 그 대통령의 무덤이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간 대통령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일에 대해서 떠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일이 진행되는 청와대 안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에요.
재벌기업 총수들의 회장실도 마찬가지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이 자기가 경영해야 되는 재벌 일에 대해서 떠나 버리면, 이 재벌 일이 나의 무덤인 것을 알고, 이 일에서 떠나 버리면 하나님께 영접 받고 마음은 평강 가운데 임하고, 이 무덤이었던 장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복음 사건이고 소천(召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언제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소천(召天)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살아 있을 때 소천(召天) 해야 됩니다.
몸이 죽는 사건이 소천(召天)이 아니에요.
몸이 죽는 사건은 소천(召天)의 사건이 중단된다는 것이고, No more chance!
그래서 몸이 살아 있을 때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멸망으로 가도록 정해질 뿐입니다.
살아 있을 때 날마다 소천(召天) 해야 됩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고 응답해서, 내 마음의 무덤인 이 세상의 구석구석으로부터, 이 세상 삶의 이일 저 일로부터 내 마음이 이 죽음의 무덤으로부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곳에서 내 기업을 찾고, 내 기업이라는 게 뭐에요? 내 마음을 채울 만족거리,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할 거리, 그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무덤에서 헤매려고 합니까?

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바로 소천(召天)의 사건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 있는 동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부르는 하늘의 음성에 응답하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죽음에 대해 죽고, 살아서 떠나 왔던 하늘로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의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몸이 살아 있는 동안이면,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한 반복되어 소천(召天)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하늘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나의 무덤자리가, 내 마음의 무덤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